

2020년 11월 15일 “아브라함 이야기(11)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창 20:10-18)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중보자로서 영적 고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는 과거의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살아나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떨어졌는지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피겠습니다.

[1]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회복은 신앙의 추락의 원인을 안다고 일어나지 않고 주님 은혜를 발견해야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앙이 연약해진 상황에서도, 은혜 안에 약속된 나의 미래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약함의 원인을 알아야만 고쳐서 온전하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더 온전히 고치면 무언가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길러내야 할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말씀과 계획을 감지/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기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받은 내 안에 창조된 선물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를 기초로 합니다.

나의 습관으로 인해 추락한 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 같고, 받아 주셔도 행복할 수 없고, 창조의 목적을 이를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이 완악한 완벽주의의 늪에 빠지면, 때로 잘못하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상처받으면 나의 삶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완벽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허구입니다. 뭔가 더 나아져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냐고 묻는다면 아마 답을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주의는 상상 속 완벽이라는 허구가 현재에 삶의 힘을 빠지게 하며, 현실에 대한 긍정성과 능동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이미 합의한 거짓말을 했을 때 번번히 망신을 당해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결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을 위해 선지자로서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7, 17 절 참고). 아브라함이 만일 완벽주의 속에서 자기만 바라보는 관점에 꽂혀 있었다면 볼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은혜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도덕적이고 인과응보적 사고/방식과는 구별되는(초월하는) 사랑의 속성과 방식을 말합니다. 종종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인과응보적 관점은 좋은 결과가 합당한 원인에만 기인한다고 말해줍니다. 이 두가지는 살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다움의 창조의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반드시 도덕적이고, 그 원인을 스스로 창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부으신 사랑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긍정하고 그분 뜻에 따르겠다는 내면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도덕성과 인과응보적 삶의 원리를 품고 넘어서 승리하게 합니다.

내가 믿음을 스스로 길러 연약함과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창조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믿는다면 언젠가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오고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관점과 방식에 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돕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야 삶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책을 자책하는데 함몰되지 않고 아비멜렉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7, 17 절). 또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출산을 진행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21:1-2). 아브라함은 자기 부족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분의 은혜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주변 사람과 인생과 세상은 왜 이럴까? 이런 질문에 빠져서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부디 하나님 은혜의 차원에 몰입하셔서 스스로 고치려는 인간중심적 믿음 아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진수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 다시 습관적 거짓말에 빠졌지만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나는 내적 외적 조건을 고쳐야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한 걸음씩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둘의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